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현대적 해석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화엄경(華嚴經) <보살설게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라는 계송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즉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화엄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송에 나오는 대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자에는 열반하신 법정 스님이 지은 <무소유> 책에도 이 계송에 대한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스님의 해골물 일화를 기원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자리잡아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마음먹기에 달렸어”라는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진리(眞理)는 어렵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활 속에 그대로 스며있는 진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전통문화 속에서 아직도 우리 몸 안에 DNA 형태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처음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뮤지컬원효>는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보려는 의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높은 문화의식을 종합 예술 장르인 뮤지컬을 이용해 구현해내는 것이 이번 뮤지컬을 주최하게 된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의 주제인 화쟁(和諍)사상은 원효스님 당시는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도 위대한 사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화쟁은 다투지 않는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뮤지컬원효를 통해 화쟁사상이 널리 퍼지고 퍼져 이 시대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그 가르침의 빛이 이 시대를 다시 밝히길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